



우리시대 참스승

영평초등학교 교장 이호연

'거울처럼 옳고 맑게' 교육

학년별·과목별 교육과정안 교육청 단위로 작성해야

"발령장을 받고 밥을 들고 와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니 마음의 찬바람이 일었으나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외갓집에 온 듯한 포근한 정감이 들고 요즘 초임교사들이 엘리트들이라 현장적응력 좋고 교육활동에 빈틈이 없어 학생 수는 몇 명 안되어도 큰 학교 못지 않은 교육활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상은 영평초등학교 이호연(56·사진) 교장이 2006년9월1일 부임 후 6개월 동안 느낀 소감이다.

이 교장은 영평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시 마포구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미동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이 책을 같이 읽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영평초등학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개인문집과 학교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에서 태어나 지산초등학교, 광주남중학교, 광주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 한국방송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이 교장은 1973년4월1일 전남 고흥군 금산초등학교에 교사로 첫 부임했다. 참고로 금산초등학교는 전 프로레슬러고 김일 선수의 모교다.

1991년3월1일 도간 교류로 경기도 화성시 정문초등학교에 부임했으며 인양시 달안초, 양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교감으로 승진해 1999년9월1일 부천 대명초등학교, 상지초등학교에 근무중 교감으로 승진해 2006년9월1일 영평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평교사로 재직 중에 '거울처럼 옳고 맑게'를 슬로건으로 삼아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정직함은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 교장은 영평초등학교 이호연(56·사진) 교장이 2006년9월1일 부임 후 6개월 동안 느낀 소감이다.

은 개인적으로 교직 발전의 성취동기를 부여 해 주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교육자율권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교사들이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신 있는 학급경영, 담임교사들의 권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는 기초기본교육이 소신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보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펴는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원만한 교육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담당자의 교수로서 권위를 회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 "7차 교육과정에서 각각 교사들이 해당과목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교육과정안을 해당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을 동원해 교육과정구성위원회를 만들어 각 학년별·과목별 교육과정을 작성한 후 각 학교에 맞도록 수정한 후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농촌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다가 각 과목별로 교육과정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11월 월간 한문문학에 시인으로 등단한 이 교장은 영평초등학교를 돌아오는 농촌학교로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이며 한국적인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진행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교육했다. 관리자로서는 '교사들이 살 맛나야 교육이 산다'는 생각으로 교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야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학교경영에 나서고 있다. 34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초임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모셨던 당시 교감선생님이 교육장으로 정년퇴임 하셨는데 본인이 교감으로 승진하자 전라남도에서 올라오셔서 격려해주셨을 때 정말 뜨겁게 감동했다고 한다. 또 초임 당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서 교감으로 승진 시 "자네 교감 명패는 내가 만들어 놔네"라고 하셨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교사로 재직 중에 '거울처럼 옳고 맑게'를 슬로건으로 삼아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정직함은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교육했다. 관리자로서는 '교사들이 살 맛나야 교육이 산다'는 생각으로 교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야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학교경영에 나서고 있다. 34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초임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모셨던 당시 교감선생님이 교육장으로 정년퇴임 하셨는데 본인이 교감으로 승진하자 전라남도에서 올라오셔서 격려해주셨을 때 정말 뜨겁게 감동했다고 한다. 또 초임 당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서 교감으로 승진 시 "자네 교감 명패는 내가 만들어 놔네"라고 하셨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교사로 재직 중에 '거울처럼 옳고 맑게'를 슬로건으로 삼아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정직함은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교육했다. 관리자로서는 '교사들이 살 맛나야 교육이 산다'는 생각으로 교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야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학교경영에 나서고 있다. 34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초임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모셨던 당시 교감선생님이 교육장으로 정년퇴임 하셨는데 본인이 교감으로 승진하자 전라남도에서 올라오셔서 격려해주셨을 때 정말 뜨겁게 감동했다고 한다. 또 초임 당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서 교감으로 승진 시 "자네 교감 명패는 내가 만들어 놔네"라고 하셨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교사로 재직 중에 '거울처럼 옳고 맑게'를 슬로건으로 삼아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정직함은 남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교육했다. 관리자로서는 '교사들이 살 맛나야 교육이 산다'는 생각으로 교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야 교육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학교경영에 나서고 있다. 34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초임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모셨던 당시 교감선생님이 교육장으로 정년퇴임 하셨는데 본인이 교감으로 승진하자 전라남도에서 올라오셔서 격려해주셨을 때 정말 뜨겁게 감동했다고 한다. 또 초임 당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서 교감으로 승진 시 "자네 교감 명패는 내가 만들어 놔네"라고 하셨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君子는 학문을 통해 친구를 사귈다'

대진대 최고경영자(CEO과정) 입학 및 개강식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최고경영자(CEO과정) 입학 및 개강식이 3월14일 오후6시30분 대진대학교 체육관1층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입학 및 개강식에 이천수 총장을 비롯해 정재화 원장, 신현구 동문회장, 윤종하 대경회장, 김형성 산악회장과 이천우 총동문회 임원장, 김경열 6기 회장, 김효섭 9기 회장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입학 및 개강식을 축하했다.

입학 및 개강식에 앞서 제11기 졸업생 일동이 대진대학교 사회와 학대해 학부생에게 전달할 장학금 200만원을 이천수 총장에게 기증했다.

정재화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君子는 학문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통해 부족함을 메꿔간다는 공자님 말씀처럼 대학원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발전시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 학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천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새로운 가족이 되신 13기 36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기가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무한경쟁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만난 대학원 CEO과정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상호협력하며 공생하는 배움과 나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구 총동문회장은 "300여명으로 구성된 총동문회는 체육행사, 송년회, 밤 등의 행사와 골프회, 산악회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며 "1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도 동문회에 참여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종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 방문/출장

3. <방문예약> : (3)
 - *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 아일메이킵트 투피어(I'll make it at 2 p.m.)
 - * 그럼, 거기서 뵙지요.
 - 씨어유더어(See you there.)
 - * 모시러 사람을 보낼까요?
 - 메이아이센트바리 투피어업?(May I send somebody to pick you up?)
 - * 몇 시에 모시러 갈까요?
 - 1) 핫타임 샤푸어피큐업? (What time shall we pick you up?)
 - 2) 핫타임이스터베스트 취피큐업업? (What time is the best for picking you up?)
 - * 사양 하겠습니다, 택시로 가겠습니다
 - 노우팬스, 아일컴바이택시 (No, thanks, I'll come by taxi.)
 - * 어디로 연락하면 되지요?
 - 1) 웨어캐나 이 게린타치위두? (Where can I get in touch with you?)
 - 2) 웨어 캐나이리치유?(Where can I reach you?)
 - * 저의 방번호 36210 하십시오
 - 마이룸넘버이스 퍼리시티투원 (My room No is 3621.)
-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dlyoon@nate.com

《 함께 공부해요 》

明 長幼之序 ⑩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少儀 예日尊長 이 己에 예禮 이어든 不敢問其年 하며 燕見 예 不將命 하며 遇於道 하여 見則面 하고 不請所之 니라 矢坐 예 弗使 어든 不執琴瑟 하며 不講地 하며 手無容 하며 不講也 하며 寢則坐而將命 이니라 侍射則約矢 하고 侍投則擲矢 하며 勝則洗而以請 이니라.

소의에 왈존장이 어기 예 유등 이어든 불감문기년 하며 연견 예 불장 명 하며 우어도 하여 견죽면 하고 불청소지 니라 시좌 예 불사 어든 불집금슬 하며 불회지 하며 수무용 하며 불삽야 하며 침죽좌이장명 이니라 시사적약시 하고 시역죽용시 하며 승죽세이정 이니라.

"소의(少儀)예기의편명. 유등(유등)아버지나 할아버지연배(年輩)연견(燕見)사사 로이 찾아오는 것 정명(聘命)전갈 하는 것 획지(畫地)명비탁을 긋는 것" (瞻 瞻을유. 燕제비연. 遇만날우 請청할형. 勿失실시. 使하여금사. 琴 거문고금. 瑟 큰거문슬은습삼삭 잘질침. 擲인운용 而말이이)

소의에 말하기를 "존장(尊長)이 자기에 비하여 아버지나 할아버지 연배가 되면 감히 그 나이를 묻지 않으며, 사사(司)가 될 때 사람을 시켜서 전갈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본다. 길에서 만났을 때 존장이 나를 보면 가서 별뿐. 그 가는 곳을 묻지 않는다. 모시고 있을 때에는 어른이 시키지 않았을 거문고나 비파를 손에 잡지 않으며, 깎았을 때 형용하지 않으며, 부채 질하지 않는다.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는 전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 앉아서 말씀드린다.

모시고 활을 쏠 때에는 화살을 한꺼번에 모아 잡으며, 모시고 투호할 때에도 화살을 한꺼번에 모아 안는다. 활 쏘거나 투호에서 연소자가 이기면 술잔을 씻어 가지고 어른에게 술 마시기를 권해야 한다." 하였다. 이 글은 연소자는 어디까지나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 예의라고 가르치는 글이다. 문의 : 011-354-6485 양 주 수 본지 지문위원장



경기북부 유일의 대진대 학군단 創設

대학발전·홍보에 기여하는 학군단 육성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3월14일 오후3시 소문동장에서 '대전, 변화, 성취'를 단호으로 한 제208학생군사교육단 창단식을 가졌다.



후보생 25명과 명예 ROTC 여학생 25명으로 구성된 대진대학교 학군단은 독창적인 단호와 대진 ROTC 10대 VISION 선정,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을 위한 7대 훈육지침 시행과 전국 최고 시설의 학군단 구축했다.

이날 창단식은 이천수 총장과 이영재(육군 소장) 학군교장과 지역 기관장 및 군 관계관, 후보생 학부모님과 대학 학·처장 및 교직원, 그리고 ROTC 서울 북부지회와 의정부지회 예비역 선배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단식을 가진 대진대학교 학군단은 제208학군단을 대진대의 '명품'으로 브랜드화, 대진대 발전, 홍보에 기여하는 학군단 육성을 목표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토탐방 ▶전원 장학금/기숙사 지원 ▶건학기념에 부합된 사관학 교식 훈육 ▶학군단 연병장 공인

화 ▶兵체협캠프 추진 ▶명예(여자)ROTC 창단 ▶ROTC축구단(동아리)결성 ▶DMZ내 농촌 봉사활동 ▶군관련 취업창구 역할 ▶대입시 홍보 기여 등 10대 추진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또 7대 훈육지침을 세우 비전과 꿈을 키워주는 학군단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7대 훈육지침은 ▶공부

잘하는 대학생 만들기(100% 성적 장학금 수혜로 학사관리·지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준다(독서 월1회1권 읽기 습관) ▶자랑스러운 대진인 육성 ▶참 군인을 육성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다양성과 변화를 리드하는 인재 육성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한다

등이다. 윤관원 대진대학교 학군단장은 "후보생들이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며 "전원 장학금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밀착훈육 및 학사지도를 통해 후보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단장은 "전원 기숙사 생활, 명예(여자)ROTC, 가장 우수한 시설 등을 갖춘 우수한 장교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대진대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대진대학교 학군단으로 거듭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 전영숙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실장

"학사학위 인터넷으로 취득했어요"

사회복지학사·평생교육학사 取得

1978년 성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만 29년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전영숙(47·사진)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실장은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이라며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2월24일자로 한국디지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사회복지학사, 평생교육학사 등 복수전공 학사학위증을 받았다.

4년 6개월 동안 노력해 얻은 결과다. 전 실장은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내안의 내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았고 관리업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공부할 시작 했다"고 밝혔다.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가장 좋았던 과목은 '정치학 원론'이다. 여러 가지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야 하는 다양한 내용을 접했을 때 진작에 공부해 두었으면 적절하게 활용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한다.

전 실장은 지난 8년 동안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지만 지난 4년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전 실장은 "더욱 공부해 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며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국관련 資料 상시 이용 가능

대진대 주한미국대사관 Window On America 협정식

대진대학교(총장 이천수)는 3월14일 오후2시에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자료정보센터와 Window On America 기증식을 가졌다.

Window On America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을 대외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에 진열하여 미국 관련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으로는 서울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 이어 대진대학교가 신간 4천권의 도서 기증식 및 협정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대진대는 미국대사관 자



료정보센터에서 책을 진열할 수 있는 서가와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파

트너쉽 프로그램으로 정보이용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식중독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경기도포천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 직무연수

경기도포천교육청은 3월14일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급식 담당자 46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및 2007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에 부합

된 운영방향을 알리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우수한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법 개정 및 2007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최길용 교육장은 학교급식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열린 학교급식 운영의 일환으로 '보호자 부담 급식 비용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의 운영 계획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성 및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지난 2월9일 관내 급식품 납품업체 60명을 대상으로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당부하는 교육을 가졌으며, 아울러 성장기 아동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된 식사 제공과 더불어 교육급식의 일환으로 영양 상담 등의 급식 운영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모두 만족하는 급식운영이 되도록 학교급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포천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질적 변화를 촉진시켜 급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